

보도일시 : 2023.4.21.(금) **배포 즉시**

담당 : 김경협 의원실 정인하 비서관
(010-7104-3724)

판문점에서 맞잡은 두 손,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

'판문점선언 5주년'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위 기념행사 개최

- 판문점 현장방문 및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초청 특별강연 진행
- 김경협 위원장, "윤석열 정부, 한미일-북중러 편가르기에만 몰두...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준비 하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 이하 '한반도평화경제특위')가 21일(오늘) 오전 11시 판문점 일대와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4.27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 판문점 현장방문 및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초청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오는 4월 27일 5주년을 맞는 판문점선언은 남과 북이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로 약속한 역사적 합의이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평화경제특위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제3초소, 자유의집,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공동기념식수 장소와 도보다리 등 판문점 선언이 이뤄진 장소에서 선언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남북협력과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선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과제: 윤석열 정부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초청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강연은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되짚고 한미일 외교안보 전략에 따른 한반도 정세 전망과 한반도 평화체제 재구축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경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번번이 대일, 대미 굴욕외교를 자행하며 한미일-북중러 편가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자존심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일조 도움 되지 않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역대 남북합의에 담긴 정신을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경협 위원장과 국회의원,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소속 위원과 자문위원 약 20여 명이 참석한다.

※ 참석자 명단

김경협 · 김민철 · 박정 · 신현영 · 오영환 · 허영 국회의원, 강경국 전 광주평화재단 사무총장,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 남관표 전 주일본 대사, 박예영 전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이소라 서울시의원, 이승열 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전상규 민주당 강원도당 상무위원, 조현삼 법률사무소 서한 대표변호사, 주승현 고신대학교 전임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최상봉 전 민주당 선대위 접경지역평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끝)